

한국독립운동사 개설서의 중국 관내와 만주지역 서술 분석*

— 분단시대 독립운동사연구의 境界 —

김주용**

〈차 례〉

1. 머리말
2. 1910년대 항일무장투쟁 및 봉오동, 청산리 전투
3. 대한민국임시정부
4. 3부와 민족유일당, 한국독립군
5. 조선혁명당과 동북항일연군
6.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7. 맺음말

【국문초록】

1987년 독립기념관이 건립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전 형태와는 다른 관심이었다. 또한 이때부터 독립운동개설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언론을 통해 반영됐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만큼 개설서의 양적 확대는 눈에 띄지 않았다. 분단 시대 역사 서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이념적 잣대로 독립운동을 기술한 개설서가 출간된 것이 2000년대 이전의 현실이었다.

2000년대 이후 기존의 역사서를 보완하거나 사회주의 세력의 독립운동을 기술한 개설서들이 출간되었다. 즉 민주와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의 역사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서술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분단체제의 실상을 극복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독립운

* 이 글은 2020년 11월 28일 역사교육연구회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 것이며, 2017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79082).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부교수

동사 개설서 서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시대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제어] 무장투쟁, 독립전쟁,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혁명당,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1. 머리말

몇 해 전부터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주제로 강의와 예능을 겸한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특히 한국독립운동사는 그 관심의 폭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며, 제작자들은 치밀하고 정치한 그물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분명 역사 전공자로서 일반인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정작 역사적 사실조차 틀리게 전달하는 방송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것 같다.¹⁾

해방 이후 한국독립운동사 저술은 개인과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동시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생존해 있어 그들의 증언을 통한 자료집 성격의 저술들이 많이 나왔다.²⁾ 하지만 본격적인 독립운동사 서술은 1960년대 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던 위원회는 약 10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해체되었다.³⁾ 이 위원회의 저서와 자료집은 생존 독립운동가들의 참여로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그 이전 시기의 단편적인 독립운동사 저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1980년대에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필두로 독립운동사 전문기관이 본격적으로 발족되었으며, 그 결과 각종 자료집과 열전 등 단행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같은 시기 시대적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개설서

1) 일례로 모 방송 모 강사가 임시정부에서의 도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과정에도 참석한 것처럼 수차례 이야기 하고 있다. 정작 도산은 1919년 5월말에 상해에 도착했다. 이렇듯 사실 관계가 엄연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 요구는 없다.

2)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8.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10, 1969.

들도 선을 보였다.⁴⁾ 뿐만 아니라 발간 개설서 양도 점차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한국독립운동사 관련 분석은 주로 교과서 또는 단독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⁵⁾ 논문과 전문학술서를 비롯한 독립운동사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교과서 분석은 학회의 ‘단골메뉴’이기도 했다.⁶⁾ 다만 독립운동사 개설서 분석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는 개설서의 범주와 개인 또는 기관(정부 포함)이 발간한 개설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인한 것 같다.⁷⁾

지금까지 만주지역과 관내지역 독립운동 연구사 정리는 논문과 저술 전체를 아울러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설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1970년대 발간된 『일제하 민족운동사』, 1980년대 발간된 『日帝下 植民地時代の 民族運動』, 『항일무장투쟁사』, 『再發掘 韓國獨立運動史』, 『1990년대 발간된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 『韓民族의 獨立運動史』, 『강좌 한국근현대사』, 『한국독립운동사강의』, 2010년대 발간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를 분석의 모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독립운동사 개설서는 아니지만 한국사 개설서로 널리 알려진 『한국사신론』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⁸⁾ 먼저 이들 개설서의 1910년대 무장투쟁 및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서술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술, 셋째 3부와 민족유일당 운동 서술, 넷째 조선혁명당과 동북항일연군, 마지막으로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을 분석하였다.

4) 김창순 외, 『일제하 식민지시대의 민족운동』, 풀빛, 1981.

5) 장세운, 『남·북한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역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이 연구에서 장세운은 남북한 개설서에 나타난 항일독립운동을 비교하였다. 다만 남북한 개설서 비교이기 때문에 한국 개설서를 풍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6) 김태웅, 『한국 근현대 역사사건의 虛實과 정리 방향-국사 개설서와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19, 2011.

7) 예컨대 진단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사의 독립운동사 관련 서술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신편한 국사의 경우 개설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통사이자 전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사의 역사 역시 광복 60주년으로 기획된 독립운동사의 총서이다. 이를 개설서로 보아야 하는 지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8) 이기백, 『한국사신론』, 一潮閣, 1985. 한국사 개설서는 독립운동사 비중이 적지만,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해방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로 설정했다. 본문에서는 출판연도 순으로 정리하려고 했다. 편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발간 주체로는 개인과 단체, 기관을 포함하였다. 다만 필자의 능력상 모든 개설서를 분석할 수는 없었다. 특히 연구 쟁점 부분은 추후 과제로 남기겠다.

분석대상 개설서 일람표

연번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1	崔永禧 외	日帝下 民族運動史	玄音社	1971	
2	金昌順 외	日帝下 植民地時代의 民族運動	풀빛	1981	
3	남우현	항일무장투쟁사	대동	1988	
4	한국일보사	再發掘 韓國獨立運動史 II	한국일보사	1988	
5	윤대원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	한길사	1990	
6	尹炳爽 외	韓民族의 獨立運動史	韓國民族運動史研究會	1990	
7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8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상의	한울	1998	2020 수정보완
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독립기념관	2013	

2. 1910년대 항일무장투쟁 및 봉오동, 청산리 전투

한국독립운동사에서 1910년대 만주지역 활동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독립전쟁론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기간 또는 단계로서 西間島, 北間島에 형성된 독립군 기지 건설과 민족교육기관 설치 등은 인재 양성 차원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단체는 신민회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신흥무관학교였다. 즉 1907년 신민회에서 국외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해 만주지역의 여러 곳을 물색하였고 1907년 12월 李章寧 일가가 유하현 지역으로 망명하면서 신흥무관학교의 서막이 올랐다. 1970년대에 발행되었던 『일제하의 민족운동사』에서는 1910년대 해외지역 독립운동사를 서술하면서 간도, 연해주지역

의병투쟁, 민족 사립학교 설립은 서술하였지만, 신흥무관학교(신흥강습소 포함)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⁹⁾ 그 이유는 신흥무관학교 관련 단독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연구성과는 1980년대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김창순·조동걸은 『일제하 식민지시대의 민족운동』이라는 단행본에서 독립전쟁 1기로서 신흥무관학교를 서술하였다. 다만 李世永, 李章寧, 李範奭, 吳光鮮, 申八均, 金擎天과 신흥무관학교를 한 줄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었다.¹⁰⁾ 만주에서 무장독립운동이 가능한 이유는 一衣帶水의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이 충족되었던 공간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청산리 전투의 준비는 이미 1911년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함께 준비되었다. 그들은 서간도지역에서 독립군의 주역으로 자라고 있었으며, 북간도에서도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수많은 민족학교에서 독립군들을 배출하였다.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에서는 서간도지역 독립전쟁론을 주장하던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李會榮 등이 독립군 간부 양성소 신흥강습소를 만들었다고 서술했다.¹¹⁾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 이루어진 白西農莊이 설립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이 이주 동포들의 경제적 이익 향상, 반일민족의식의 고취, 군사교육을 통해 서간도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한 몫 했다고 정리했다. 북간도 용정촌, 명동촌과 密山의 韓興洞이 주요한 독립군 기지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밖의 독립운동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車道善 등이 운영한 白山武官學校에 대한 언급은 없다.

윤병석 외, 『한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는 新民會 멤버들이 만주로 가서 柳河縣 三源浦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였으며, 그 밖의 밀산 한흥동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였다고 서술하였다.¹²⁾ 한인무관학교의 설립과 군사훈련 실태를 집중적으로 서술하면서 신흥무관학교는 국내의 애국 청년은 물론 일본군

9) 최영희·김성식·김윤환·정효섭, 『일제하의 민족운동사』, 현영사, 1971, 59~62쪽.

10) 김창순·조동걸, 『일제하 식민지시대의 민족운동』, 풀빛, 1981, 257쪽.

11)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122쪽.

12) 윤병석 외, 『한민족의 독립운동사』, 韓國民族運動史研究會, 1990, 454쪽.

출신 한인 장교들까지 망명하여 독립군 양성에 전력을 경주하였으며 다양한 근대 군사지식까지 교수하여 강력한 군사훈련기관으로 발전하였다고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북로군정서에서 꾸린 사관연성소 등도 언급하였다. 개설서 가운데 신흥무관학교를 지면을 많이 할애하여 서술한 최초의 개설서일 것이다. 1990년대 말 한국근현대사연구회에서는 대학 강의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개설서 『한국독립운동사강의』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사 서술은 독립운동기지 건설, 백서농장, 독립군단 편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2000년대 들어와서 독립기념관에서는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총서를 발간하면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인 염원을 담아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를 내놓는다. 이로써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열들의 영웅적 투쟁에 보답하고 일제 강점으로 이지러졌던 한민족사를 바로 잡는 한편 국내외에 대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¹⁴⁾

독립기념관은 『총서』가 전문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고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에 개설서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해외독립운동 근거지 건설이라는 부분에서 북간도, 서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 및 미주지역 한인사회의 축적된 힘이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된 단체가 신흥무관학교라는 것이다.¹⁵⁾ 1913년 3월 신흥학우단이라는 혁명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개설서에 처음 등장한 단체였다.¹⁶⁾ 해외 이주한인 사

13)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한울, 1998, 180~182쪽.

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 2008. 「발간 취지」.

1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독립기념관, 2013, 89쪽.

16) 신흥무관학교 1기 졸업생으로 알려진 원병상은 신흥학우단은 1913년 3월에 조직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2010년 미주에서 기증된 『신흥교우보』에는 정확히 1913년 5월에 신흥교우단이 조직되었다고 했다. 신흥교우단과 신흥교우보에 대해서는 장세윤, 「신흥교우보 해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010; 김주용, 「신흥교우보를 통해본 신흥무관학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2011 참조.

회를 통해 독립군 기지 건설이 훨씬 용이하면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일제의 한국 강점으로 인해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노령지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러던 중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 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종전의 조직을 독립군 단체로 전환시켜 갔다. 이들 단체들은 한·만 국경 지대와 만주 및 연해주 지역에서 적극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진공작전을 통해 일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독립군 단체들의 국내 진공작전은 1919년 후반부터 흥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비롯하여 서·북간도의 여러 독립군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한독립군은 일본군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惠山鎭을 점령한 뒤 甲山으로 진격하여 들어온 후 江界와 滿浦鎭을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다.

1920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한 해이기도 하다. 북간도 지역에서 이것을 알리는 승전고가 올랐다. 1920년 6월 7일 독립군 연합부대와 일본 정규군이 처음으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벌였다. 봉오동 전투의 서막은 삼둔자 전투였다.¹⁷⁾ 6월 4일 새벽 20여 명 규모의 독립군 부대가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종성군 강양동으로 진격하여 일본군 헌병 순찰대를 격파하고 귀환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군 수비대가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을 추격하였다. 독립군은 두만강 건너 삼둔자에 매복하였다가 일본군 추격대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패전 소식을 듣고 격분한 일제는 일본군 제19사단 병력을 동원하여 월강 추격대를 조직하여 독립군을 궤멸시키고자 하였다. 추격대를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한 독립군들은 6월 7일 오후 1시경 매복시킨 군을 이용하여 집중 사

17) 봉오동 전투에 대한 대표적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尹炳奭, 『韓國獨立軍의 鳳梧洞勝捷 小考』,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 1989; 朴昌昱,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연구-庚申年反討伐戰을 재론함-』, 『韓國史研究』 111, 2000; 장세윤,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 흥범도의 독립전쟁』, 역사공간, 2007; 신주백, 『봉오동전투에 관한 기억의 유동과 새로운 기억을 향한 접근-지역으로서 동북아와 근원적 사실을 향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2018; 이상훈, 『‘봉오동부군 전투상보’를 통해 본 봉오동 전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2020; 장세윤,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독립전쟁의 주요쟁점 검토』, 『재외한인학회』 54, 2021.

격을 가하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전사 157명, 중경상 300여 명의 피해를 입었으며, 독립군은 6명의 사상자를 내었을 뿐이다.

한편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으로 패전을 거듭하던 일본군이 1920년 10월부터 당시 만주의 군벌 장작림과 협상하여 독립군의 소탕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이후 만주지역에서는 한국 독립군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었다. 따라서 독립군 부대는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을 피해 북만주 密山으로 근거지를 이동하였으나, 이를 간파한 일제는 한국 독립군의 소탕을 위하여 그 근거지인 간도에 군대를 파견하는 이른바 「간도출병」을 감행하였다. 일본군은 당시 청산리 지역에서 이동하던 독립군 부대, 즉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그리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등 1,600여 명의 독립군을 추격하게 되었다.

1920년 10월 21일 오전 근거지를 이동해 가던 독립군과 일본군이 청산리에서 만났다.¹⁸⁾ 김좌진이 북로군정서는 백운평 골짜기에 매복해 있다가 추격하는 일본군을 공격하여 200여명을 사살하였다. 같은 날 홍범도 연합부대는 완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군 연합부대는 일본군과 아홉 차례에 걸쳐 전투를 벌이면서 오히려 일본군 1, 200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청산리 전쟁은 독립군기지를 개척한 독립군의 준비된 전쟁이며, 연합작전으로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서부전선의 전투가 끝난 뒤에 러

18) 지금까지 청산리 대첩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종하, 「청산리 전투의 군사적 의의, 『나라사랑』 41, 1981; 신용하, 「독립군의 청산리전투」, 『군사』 8호, 1984; 신용하, 「독립군의 청산리 독립전쟁의 전투들의 구성」, 『사학연구』 38, 1984; 조동걸, 「만주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1920년 청산리전쟁 80주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연구』 111, 2000; 박창욱,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연구-경신년반토벌전을 재론함」, 『한국사연구』 111, 2000; 김태국, 「청산리 전쟁 전후 북간도지역 일본영사관의 동향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111, 2000; 김용달, 「청산리대첩에 대한 임시정부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15, 2000; 조동걸, 「청산리 전쟁 80주년의 역사적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15, 2000; 손춘일, 「청산리전역 직전 반일무장단체의 근거지 이동에 대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6, 2000; 조필근, 「항일무장독립전쟁의 군사사학적 연구: 청산리 전역을 중심으로 -」, 충남대박사학위논문, 2011; 신주백, 「한국근현대사에서 청산리 전투에 관한 기억의 유통-회고록, 전기와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 『한국근현대사연구』 57, 2011; 윤상원,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 대한 소련과 러시아의 평가」, 『역사문화연구』 56, 2015; 신호승, 「청산리 전역시 일본군의 군사체계와 독립군의 대응」, 『학림』 37, 2016; 신호승, 「청산리 전역의 전개배경과 독립군의 작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6, 2016; 신호승, 「보고에서 서고화한 기억으로: 청산리 전역 보고의 정치학」, 『역사비평』 124, 2016. 황민호, 「청산리전투에 관한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5, 2020.

시아로 넘어가서 밀산으로 집결할 때도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청산리 전쟁 역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한인사회와 독립군간의 연동관계는 상당히 긴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청산리전투에서 승전을 거둔 독립군 연합부대는 국민회군·의군부·광복군단 등 독립군 단체들이 집결한 북만주 밀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밀산에 집결한 독립군 단체들은 계속되는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노령 한인 거주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계획하였다. 러시아 한인 거주지역으로의 이동계획은 당시 러시아의 10월혁명 성공 후 레닌 등이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이들 역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장기적인 대일항전을 전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독립군 단체들은 노령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밀산에서 각 단체를 통합하여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새로운 독립군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후 노령지역으로 이주하여 자유시에 집결한 대한독립군단은 1921년 6월 시베리아에서 赤軍에 협조해 오던 한인부대인 자유대대 및 사할린 부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자유대대와 사할린 부대간의 싸움에 휘말려 수백명이 죽고 포로가 되는 참변을 당하였다. 이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의 장기항전계획이 좌절됨에 따라 대한독립군단은 다시 만주지역으로 이동, 종래의 무장독립군의 활동 근거지를 재편성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재개하였다. 청산리 전투 서술의 주요 쟁점은 전투주체, 부대규모, 일본군 사상자 수 등이다. 최영희 외, 『일제하 민족운동사』의 봉오동, 청산리 관련 서술은 다음과 같다.

독립군 부대는 1919년 여름 이후 두만강을 건너 국내진격작전과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봉오동전투(1920년 7월), 청산리전투(1920년 10월)에서의 일본군 격멸은 큰 전과로서 국내외 독립운동을 고무시켰다.¹⁹⁾

19) 최영희 외, 『일제하의 민족운동사』, 현음사, 1982, 94쪽.

먼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단 몇 줄로 정리하면서 민주독립군은 일제통치자에게 일대 위협이었고 공포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 예컨대 봉오동 전투를 1920년 7월로 표기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발간된 『일제하 식민지시대의 민족운동』이라는 개설서 내 제 9장 항일독립운동에서 다음과 같이 무장투쟁의 개념을 서술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독립전쟁에 의한 조국광복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있어서의 하나의 투쟁형태이고 방법의 문제이며 수단의 문제에 속한다. 무릇 모든 운동의 투쟁형태는 거의 예외 없이 주객관적 요인에 의하여 구성된다.²⁰⁾

이러한 개념 하에 무장 투쟁은 개관적, 주관적 요인 하에 진행되었다고 한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주요 원인은 무장항일투쟁 전략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봉오동 戰捷’과 청산리 戰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까지를 무장독립운동 제1기로 규정하였다.²¹⁾

『한국사신문』에는 청산리 전투를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단독 부대의 전과로 서술하였다.²²⁾ 이는 해방 이후 학계에도 투영되었던 반공논리가 역사서술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 같다. 철기 이범석의 『우등불』을 모본으로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단독부대의 활약으로 미화되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청산리의 기억을 고정화시켰다.

남현우는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항일독립운동에 초점을 두면서 봉오동 전투를 서술하였다.²³⁾ 특히 홍범도 위주의 봉오동 전투 서술과 일본군 전사자 600여 명 등이라고 한 점은 역사적 사실 조차도 외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청산리 전투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념적 잣대로 역사를 판단하였던 결과이다. 이 개설서는 주로 1930년대 동북항일연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전체를 이

20) 김창순 외, 『일제하 식민지 시대의 민족운동』, 풀빛, 1981, 253쪽.

21) 김창순 외, 위의 책, 254~259쪽.

22) 이기백, 앞의 책, 429쪽.

23) 남우현, 『항일무장투쟁사』, 대동, 1988, 41~42쪽.

해하는 데는 지극히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윤대원은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에서 무장독립전쟁론이 형성된 만주 지역의 독립전쟁 노선을 설명하였다. 의병계열이 국내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없어 만주로 망명한 후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여 1920년대 만주 독립전쟁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²⁴⁾ 1980년대 역사적 연구 배경이 독립운동사 서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1910년대 만주지역 독립군 근거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재만한인사회의 형성과정과 그 실태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인사회의 뿌리가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치러질 수 있었던 원천이었다. 이 개설서에서는 봉오동 전투=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청산리 전투=김좌진의 북로군정서 도식을 벗어나지 못했다.²⁵⁾

『한민족의 독립운동사』 제4장에서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봉오동 전투를 정규 일본군과 처음으로 치른 전쟁으로 분석하였으며, 최명록(최진동)과 홍범도의 합동작전임을 강조하였다. 용어도 전투가 아닌 전쟁으로 표기하였다.²⁶⁾ 또한 청산리 독립전쟁은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독군부 등이 합동으로 제국주의 일본군을 물리친 성과라고 정리했다.²⁷⁾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에서도 봉오동전투,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는 한말 의병장 출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일본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치렀다고 했다. 이 개설서에서는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와 연합부대를 형성하여 일본군을 격파하였다고 했지만 그 날짜가 1920년 7월 7일로 되어 있다.²⁸⁾ 6월 7일의 오류이다.

24) 윤대원,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 한길사, 1990, 37쪽.

25) 윤대원, 위의 책, 41쪽. 이 책은 三矢協定에 관한 연도 오류를 보이고 있다.

26) 전투, 전쟁, 대첩에 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방 이후 1920년 10월 21일부터 한국독립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지칭하는 용어는 청산리 전투, 청산리 독립전쟁, 청산리 대첩, 청산리 전역 등이었다. 하지만 2020년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정확한 용어로 통일하지 못한 채 각 연구자에 따라 그 명칭이 달리 불리고 있다.

27) 윤병석 외, 『한민족의 독립운동사』,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0, 464~467쪽.

28)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155쪽. 봉오동 전투를 7월 7일로 표기하고 있는 단행본은 몇 개 더 있다. 이 표기의 근원이 어디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서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가능하게 했던 한인 사회와 군자금 모금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서로군정서의 군자금 모금은 한족회 관할 구역 내 1만여 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봉오동 전투는 삼둔자 전투 이후 일본 월강추격대를 유인하여 봉오동 지역에서 거둔 승전으로 일본군 전사자는 157명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청산리 대첩’과 정신참변을 동시에 다루었다. 1920년 10월 2일 훈춘사건 조작과 자국민 보호를 앞세워 간도침략을 단행했던 일본군의 이주한인 학살사건, 독립군 연합부대의 避戰策과 청산리 전투 과정과 전과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²⁹⁾ 독립군 전체 참가자 수 및 일본군 전사자 등은 개설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3.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과 동시에 기획·공포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을 통해 태어난 신정부이다. 민주공화제를 지향했으며, 정부직제 역시 왕정과는 완전히 달랐다. 임시헌장(헌법)과 의정원, 국무위원 등 민주공화제의 특징인 엄격한 삼권분립 하에 정부를 운영하였다. 다만 영토와 구성원의 부재라는 분명한 한계 속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부침이 클 수밖에 없었다.

김창순, 『일제하 식민지시대의 민족운동』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현우의 『항일무장투쟁사』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술이 없다. 최영희 등이 저술한 『일제하의 민족운동사』는 민족운동사 내에 해외지역 독립운동사를 다루고 있으며, 상해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을 서술하면서 3·1운동 이후 대안 없이 수립되었음을 강조하였다.³⁰⁾ 그런데 1918년 상해

2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13, 142~147쪽.

30) 최영희 외, 『일제하의 민족운동사』, 현음사, 1982, 75쪽. 이 저서는 1971년 아세아문제연구소 『일제하의 한국연구총서』 5로 출간된 것을 9년 뒤 현암사에 다시 출간한 것이다.

거주 신규식, 여운형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3·1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을 연계하고 있었으며, 그 실체로 일본의 이광수를 파견하고, 만주와 연해주에도 조소앙과 여운형을 파견하여 동포사회의 열기를 가늠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출간된 개인 출간의 독립운동사 개설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부분이 소략하다. 이는 임시정부 수립 이후 내부의 지독한 갈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여 연구자들에게 임시정부를 연구하고 언급하는 것이 소홀하였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³¹⁾ 이러한 가운데 한국일보사에서는 『재발굴한국독립운동사』를 발간하였으며, 제2편 중국 본토에서의 투쟁에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통합정부의 탄생, 임시의정원 활동, 한국광복군 창설과 중국 국민정부의 관계,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임시헌장의 계승성을 비중있게 다루었다.³²⁾ 그 가운데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적 운영과 정통성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임정 27년 동안 이 헌법의 개정 절차는 걸렸지만 통할 통치의 이념이나 그 의도는 그 시대와 요구에 부응되어 진폭 있는 법전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처음 대통령 중심 지도체제의 시행으로부터 중국에는 주석, 부주석 중심 지도체제로 끝막음하여 통치될 때까지 분명한 것은 依憲의이고 국민합의적인 민주 절차에 의한 정치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³³⁾

민주공화정의 기본인 의회정치를 시행하였으며, 임시헌장에 근거한 통치체제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을 1919년 4월 13일로 잡고 있다.³⁴⁾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에서는 설립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독립운

31) 『일제하 식민지시대 민족운동』에서 임시정부 관련 서술은 제외되었다.

32) 한국일보사 편, 『재발굴 한국독립운동사』 제2편 중국 본토에서의 투쟁, 한국일보사, 1988, 25~68쪽.

33) 한국일보사 편, 위의 책, 62쪽.

34)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 논란은 1919년 4월 11일로 확정되어 2019년 4월 11일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동사』를 저술하였다. 당시 이 저서는 독립운동사 연구자이자 국가보훈처 공훈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학자들의 공동 저작이다. 그 가운데 만주지역과 중국 관내는 제8편과 9편에 편제되었다.³⁵⁾ 먼저 제8편 만주지역과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활동이라는 글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목차는 만주지역 한인사회 형성, 만주와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단체와 활동, 만주와 러시아 지역 독립전쟁, 한인무관학교 설립과 군사훈련 실태 및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한독립운동 강압정책으로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독립전쟁’이라는 용어사용과 무관학교 설립과 군사훈련 실시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다만 무관학교 설치 부분의 분량이 소략하였다는 점은 그 당시 연구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신흥무관학교 등 무관학교의 연구가 진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설서에 이를 반영하기는 무리였다. 또한 중국 지역 정확한 지명 표기가 아쉬웠다.³⁶⁾ 제9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부분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과 활동, 광복군의 성립과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다만 교육부분에서 인성학교 및 삼일학교만 언급하였을 뿐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³⁷⁾

윤대원은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에서 독립운동의 방략 차원에서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를 다루었다. 상해임시정부가 걸었던 외교독립론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가 시대적 한계 속에서 외교론에만 매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활동은 제한적이며 선택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시정부 서술의 균형적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임시정부의 활동을 단선적으로 서술한 것 같다.³⁸⁾

역사학연구소의 『강좌 한국근현대사』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술은 주로 임정의외교론의 결함을 지적하는 선에서 정리되었다. 즉 임시정부가 외교독립론을 띠고 출발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이승만이 갈등을 야기하여 결국 1925년 탄핵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와 국민이 없는 상태에서

35) 윤병석 외, 『한민족의 독립운동사』,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0, 443~494쪽.

36) 穆棧을 穆陵으로 표기하는 개설서가 대부분이었다.

37) 윤병석 외, 위의 책, 497~575쪽.

38) 윤대원, 앞의 책, 28~35쪽.

임시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은 외교활동이었음을 서술하였다.³⁹⁾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서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 3.1운동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의 출범이 국제정세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1919년 4월 11일을 임시정부의 탄생일로 기록하였으며, 그 해 9월 통합정부로 거듭났던 과정을 정리하였다. 특히 임시정부의 활동을 외교론에만 국한하지 않고 언론, 군자금모금, 군대육성, 교육 등을 다루었다. 또한 임시정부의 한계였던 조직 간의 불만과 불신을 국민대표회와 연동하여 설명했다.⁴⁰⁾

4. 3부와 민족유일당, 한국독립군

1920년 10월 제국주의 일본의 간도 침략은 독립군의 지형도를 일시적으로 변형시켰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독립군들은 압록강, 두만강 대안에서 일본군과 수십 차례 교전하기도 했다. 청산리전투 이후 대규모 독립단은 밀산,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자유시 등으로 이동하면서 큰 시련도 겪었다.

한편 1920년대 중반 만주에서 민족주의 독립운동 단체는 大韓統義府 시기부터 민정기관이 군정기관보다 우위에 선 가운데 자치의 비중을 높여갔다. 이때 자치는 봉천군벌의 테두리 속에서 한인만의 교육진흥과 식산흥업을 이룩하려는 반공개적인 자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독립전쟁론은 외교론을 부정하였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무장투쟁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일상적인 자치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일본군의 한국 독립군에 대한 강력한 ‘탄압’작전으로 말미암아 만주지역의 독립군 단체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밀산을 거쳐 노령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다시 만주지역으로 이동하여 독립

39) 역사학연구소, 앞의 책, 152~153쪽.

4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37~138쪽.

군 조직을 재정비하여 갔다. 1922년 만주의 독립군 단체들은 南滿韓族統一會를 개최하여 보다 효과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大韓統軍府를 조직한 후 곧이어 이를 大韓統義府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러나 대한통의부 조직 내의 의병 계열은 탈퇴하여 義軍府를 조직한 뒤 상해의 임시정부와 교섭을 통해 남만주 지역에서의 軍政府로 승인을 받았고, 1924년 8월에는 臨時政府의 駐滿參議府로 새로이 발족하였다.⁴¹⁾

만주지역의 독립군 단체가 통의부·참의부 등으로 분열되자 보다 효과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통의부와 참의부 등 여러 단체가 길림에서 회합하여 正義府를 조직하였다. 한편 이 시기 북만주 지역에서는 新民府가 조직되어 무장투쟁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는 일본군의 '간도출병'과 자유시참변 이후 북만 일대와 북간도의 북부로 이동하였던 독립군 단체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것이었다.⁴²⁾

이와 같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 단체들은 정의부·참의부·신민부 등의 3부로 통합·재편성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1925년 일제와 동북군벌정권 사이에 비밀협약인 三矢協定이 체결되면서 중국 관헌들에 의해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피체되고 독립군 단체가 '토벌'이란 명목으로 탄압을 받게 되면서 만주지역 독립운동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중국 측에서는 6월 11일에 '取締韓人法', 7월 8일에 '取締韓人法施行細則'을 공포하였다. 협정의 내용은 첫째 국경수비에 있어서 양국 관헌의 상호 월경 금지, 둘째 동변도 관내의 조선인 항일세력에 대하여 중국 측에 의한 취체의 시행, 두 가지 이다. 三矢協定이 공식 명칭은 「不逞鮮人の團東方法에 대한 雙方의 協定」이다.⁴³⁾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중국 재류 조선인은 중국 관헌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무기휴대는 엄격히 금하고 독립운동단체를 탄압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⁴⁴⁾ 이러한 조항들은 주로 총기

41) 채영국, 『1920년대 후반기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2007, 3~23쪽.

42) 채영국, 위의 책, 24~73쪽.

43)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下, 75쪽에 의하면, 「不逞鮮人の取締方に關する朝鮮總督府奉天省間の協定」이 정식명칭이다.

4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463~464쪽.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하, 75쪽.

후대에 대한 통제를 담고 있다. 삼시협정이 체결되자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부의 통일 즉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중국 내에서는 대한독립당조직부경축성회가 성립되어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만주지역 독립군 단체들도 정의부 중심으로 민족유일당운동을 추진하였으나, 운동단체간의 방략상의 차이로 통합운동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정의부의 일부 인사와 신민부의 군정과 및 참의부 계열이 중심이 되어 혁신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 후 신민부 軍政派 및 무정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재차 韓族自治聯合會가 조직되는 한편,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이 조직되어 한국독립군을 창설하면서 한·중연합군을 편성하여 반만항일전을 전개하였다.

최영희 외 『일제하의 민족운동사』에서는 청산리 전투 이후 독립군단이 연해주로 가서 자유시 참변을 겪고 다시 만주로 이동하여 1921년 독립군단의 재정비가 이루어졌다고 서술했다.⁴⁵⁾ 그러면서 1922년 이후 독립군단의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회의가 독립군 단체별로 진행되었으며, 1924년에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형성되었다고 했다. 특히 3부는 이주한인에 대한 정부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군사활동을 통한 국내 진공작전도 수행하려고 했다고 정리했다.

『일제하 식민지시대의 민족운동』은 참의부, 정의부, 참의부 및 민족유일당운동의 활동을 무장독립운동 제2기로 규정하였다. 서술 분량은 적지만 3부의 성립, 활동과 주요 구성원 및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탄생한 국민부의 성립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했다.⁴⁶⁾ 뿐만 아니라 만주사변 전후 한국독립당의 활동 가운데 쌍성보 전투, 경박호 전투,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⁴⁷⁾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의 『한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는 대한통군부, 대한

45) 최영희 외, 앞의 책, 95쪽.

46) 김청순 외, 앞의 책, 264쪽.

47) 김청순 외, 위의 책, 265쪽.

통의부 활동을 서술하면서 이 단체들이 3부로 정립하게 된 과정과 三矢協定으로 곤란을 겪게 된 이주한인과 독립운동단체들의 실상도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와 밀정에 대한 언급도 추가하였다.⁴⁸⁾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에서는 1920년대 중후반 만주지역 무장 항일투쟁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⁴⁹⁾

윤대원은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에서 삼부와 민족유일당을 먼저 만주지역의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의 활동을 분리해서 서술하였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외에 1926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미 조직된 다양한 공산주의 세력이 어느 정도 통합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⁵⁰⁾ 만주총국의 활동을 민족유일당 운동의 한 지류로 설명한 부분은 이 시기 다른 개설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또 비교적 민족유일당의 통합 논의와 국민부 성립 과정을 서술 분량뿐만 아니라 쟁점까지 정리하면서 서술하였다.⁵¹⁾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를 야심차게 정리했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서는 3부 성립과 국민부로의 통합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 특히 3부 성립과정은 청산리 전투 독립군단의 자유시 참변 이후 서술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만주지역 민족유일당 운동 부분에 간략하게 도표와 함께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⁵²⁾

5. 조선혁명당과 동북항일연군

제국주의 일본은 만주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의 발단인 柳條湖 사건을 일으켰다. ‘만주사변’은 만주지역의 정치, 경

48) 윤병석 외, 앞의 책, 456~459쪽.

49)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참조.

50) 윤대원, 앞의 책, 186쪽.

51) 윤대원, 위의 책, 189~193쪽.

5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68쪽.

제, 사회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주한인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 권력과 그에 따른 통치세력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로 짠 구도 속에서 일제가 펼친 정책과 그 영향으로 이주한인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⁵³⁾ 따라서 일제는 五族協和를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내세워 국가 건립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피난 이주한인 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시도하였다. 만주국은 각기 다른 민족의 융합과 협동을 국가건국 이념의 최우선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만주사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주한인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 이른다.

최영희 외 『일제하의 민족운동사』에서는 만주사변, 만주국 성립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지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단정 지었다. 1933년 이후로 항일전쟁이 종식되었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1933년 가을 대전자령 전투 이후 민족주의 계열이 관내로 이동한 것을 염두에 둔 것 같다.⁵⁴⁾ 하지만 동북항일연군으로 이어지고 있는 독립운동의 한 부분은 아예 한국독립운동사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던 결과물이라 보인다. 분단의 그림자가 학문영역에도 그대로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하 식민지시대의 민족운동』에서는 만주국 성립 전후 민족주의 계열의 반만항일전투 가운데 조선혁명당(사령관 양세봉)의 활동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만주국에서 가장 위협하게 인식하고 있는 한국독립군 세력이 조선혁명군이었음을 언급하였다.⁵⁵⁾

한편 1933년 만주국의 ‘치안유지’를 표방한 항일독립군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1사가 성립되었다.⁵⁶⁾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1사는 주로 반석현을 중심으로 한 유격대가 그 골간이었으며, 제2

53) 표면적으로 구제 사업을 내세웠던 것도 한인사회의 안정화라는 측면과 이를 통해 일본인 이민세력을 부식시키려는 것을 연동해서 고려했던 것이다. 특히 협화회를 통한 농촌행정지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淺田喬二·小林英夫,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 時潮社, 1986, 278~288쪽).

54) 최영희 외 『일제하의 민족운동사』, 99쪽.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의 활동은 1935년까지 지속되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55) 김창순 외, 앞의 책, 266~267쪽.

56) 총사령 양정우, 참모장 이홍광으로 구성된 제1군 1사는 조선인 부대로 불릴 만큼 이홍광의 영향이 컸다. 이홍광은 불과 26세에 생을 마감하였지만 국경 일대에서는 큰 활동을 전개하였다.

군은 주로 연변지역을 거점으로 조직되었다. 동북항일연군은 만주국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전투 및 선전활동에 주력하였다. 특히 열차습격이나 헌병대를 공격함으로써 일제 침략의 상징물에 대한 파괴를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⁷⁾ 동북항일연군이 직접 전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주국의 지속적인 ‘치안숙정’과 이를 통한 항일세력에 대한 탄압이었다.⁵⁸⁾ 여기에는 지역적 특수성, 예컨대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인접성이 동북항일연군의 국내진공작전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격대를 모태로 성장했던 동북항일연군은 지역민에 대한 동조세력 확보가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데 필수요소였다. 따라서 이들은 노래책, 뼈라 등을 통하여 대 군중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⁵⁹⁾ 이는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은 일반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동북항일연군은 “민중에 대한 조직공작과 선전공작을 잘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대중들과 괴리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⁶⁰⁾ 주로 유격대를 근거로 활동하던 동북인민혁명군은 1936년 이른바 8.1선언의 토대 하에 동북반일연군 군정연석확대회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서는 동북항일통일전선을 확대함과 동시에 항일무장세력을 조직하여 계획적으로 동북항일유격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었다. 즉 동북인민항일연군은 중국의 통일적 임시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만주에서 조직된 과도정권의 ‘항일군대’였다.⁶¹⁾

남현우, 『항일무장투쟁사』는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을 균형적으로 다루었다기 보다는 그 가운데 1930년대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만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춘황, 추수투쟁 및 동북항일연군에서의 김일성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⁶²⁾ 이 책

57) 김우중 주필, 『동북지역 조선인 항일력사자료집』 9,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2003, 73쪽.

58) 1940년부터 이듬해까지 관동군은 병력을 40만에서 거의 두배인 76만 명까지 증가하여 항일연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1940년을 전후하여 남만과 동만지방 항일연군은 거의 소멸하였다(장세윤,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2005, 495쪽).

59) 김우중 주필, 앞의 책, 96쪽.

60) 김우중 주필, 앞의 책 10, 104쪽.

61) 김창순, 『만주항일연군연구』, 『국사관논총』 11, 1990, 124쪽.

62) 남현우 엮음, 『항일무장투쟁사』, 대동, 1988.

에서도 이청천의 대전자령 전투 등은 찾아 볼 수 없다.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의 동북항일연군 관련 부분은 만주지역 국제 정세의 변화 즉 만주사변 이후 독립운동세력들 가운데 좌익 계열이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소비에트 설립과 홍군건설에 참여했다는 서술이 주였다.⁶³⁾ 김일성이 활동했던 조국광복회가 동북항일연군에 합류하는 과정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였다.⁶⁴⁾ 다만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제1독립사 사장 이홍광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이홍강’이라고 기술하였다.⁶⁵⁾ 오류이다.

한국일보사에서 정리한 『재발굴 한국독립운동사』 2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이 관내로 이동한 이후 조선공산당 해체 이후 동북인민혁명군 창설과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김일성의 항일투쟁도 전면에 서술하였다.⁶⁶⁾ 역사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에서 만주사변 이후 만주 유격대 창건과 동북인민혁명군의 조직, 조국광복회 결성과 동북항일연군 활동을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민생단 사건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⁶⁷⁾ 김일성을 언급하면서도 항일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93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서술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었다. 만주국 건국과 한국독립군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승리, 한중연합군의 활동, 동북인민혁명군, 이후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특히 보천보 전투를 국내 진공작전의 일환으로 파악하였다.⁶⁸⁾

63) 윤대원, 앞의 책, 276~277쪽.

64) 윤대원, 위의 책, 286쪽.

65) 윤대원, 위의 책, 280쪽.

66) 한국일보사, 앞의 책, 223~226쪽.

67)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현대사』, 217~222쪽.

6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앞의 책, 208~213쪽.

6.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1937년 7월 일제의 본격적인 대륙침략으로 중국 전토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중일전쟁의 확대로 한국독립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제의 대륙침략 수위가 점차 높아지던 1938년 10월 10일 湖北省 武漢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조선민족혁명당 총서기인 김원봉은 1938년 7월 7일 중국국민당 총재인 장개석에게 조선의용대 건립방안을 제출하였다.⁶⁹⁾ 이 방안에 대해 장개석은 비교적 우호적 반응을 보였고, 이 문제를 국민정부군사위원회 정치부장 陳誠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⁷⁰⁾ 이 때 靑山和夫가 국제의용군 문제를 국민정부에 제출하면서 ‘조선인문제의 해결방법’도 아울러 첨부하였다. 아오야마의 안건은 진성을 통해서 장개석에게 제출되었지만 그의 견해가 한국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김원봉이 제출한 안건이 채택되어 조선의용대를 조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1938년 10월 10일 무한에서 중국정부대표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의용대의 창립식이 거행되었다. 조선의용대는 창립선언에서 한중 공동으로 항일전선을 결성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데 진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⁷¹⁾ 이렇듯 조선의용대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한국독립군 군대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그대로 안은 채 출발하였기 때문에 후일 조선의용대 본대와 지대가 다른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조선의용대는 일제의 무한침략으로 그 본대를 廣西省 桂林으로 이동하였다.⁷²⁾

조선의용대에 대한 서술은 1970년대에는 보이지 않는다. 최영희 외, 『일제하의 민족운동사』에서도 조선의용대의 전신인 의열단은 언급하면서 정작

69)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청년전위동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 연맹 등이 1937년 11월에 漢口(무한)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단체는 조선민족혁명당이였다(최강, 『조선의용군사』, 연변인민출판사, 2006, 10~11쪽).

70) 장세운, 「조선의용대의 조직편성과 구성원」, 『한국근현대사연구』 11집, 1999, 40쪽.

71) 楊昭全,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彙編』, 851쪽.

72) 김영범, 「조선의용대 연구」, 『한국독립운동연구』 2, 1988.

중국 관내를 무대로 대적항전의 최일선에 있었던 조선의용대의 활동은 서술하지 않았다.⁷³⁾

『강좌 한국근현대사』의 열단의 성립과 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으로 조선의용대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서술하였다. 중국 국민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만을 적시했을 뿐 왜 국민정부가 조선의용대를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⁷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활동과 조선의용군을 이름을 바꾼 후 태항산과 연안 지역 활동을 소략하게 언급하였다.

한국일보사 『재발굴 한국독립운동사』 2에서는 김원봉 주도로 대일전선통일동맹이 결성되고, 이것이 민족혁명당으로 발전하였으며, 나아가 조선민족전선연맹 창립과 조선의용대 성립을 정리하였다. 1938년 10월 10일 漢口(현武漢)에서 성립된 조선의용대는 항일민족진영 통일과제를 띠고 결성되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하지만 관내 다양한 대적 활동을 통해 중국인과 공동항일 투쟁의 선전 효과는 제고하였다고 분석했다.⁷⁵⁾

『강좌 한국근현대사』의 조선의용대 서술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기본 강령과 군 조직으로 탄생하였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나아가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으로 바뀌는 과정도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용군이 해방 이후 국공내전기에 참가하고 북한의 인민군에 편입되었다고 했다.⁷⁶⁾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에서 조선의용대 분량은 적다. 오히려 화북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활동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조선의용대가 국민정부의 승인 하에 움직이는 군대이며 桂林으로 이동하게 된 것에 대한 불만 표출하였다고 정리하였다.⁷⁷⁾ 다만 1938년 11월 계림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의 활동은 국민정부와 공산당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 중심인물이 郭沫若이었다.⁷⁸⁾

73) 최영희 외, 앞의 책, 100쪽.

74)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223쪽. 중국 국민당 정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중국 국민정부이다.

75) 한국일보사, 앞의 책, 184~195쪽.

76) 역사학연구소, 앞의 책, 222~225쪽.

77) 윤대원, 앞의 책, 294~303쪽.

78) 『救亡日報』 창립자였던 郭沫若은 조선의용대원들과 함께 계림에서 대적항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의 조선의용대 서술은 분량이 아주 적다. 조선의용대의 창설 과정, 전투 참여 실태를 서술하였으며, 특히 선전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정리했다. 화북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선의용군으로 바뀐 과정과 중국 공산당과의 공동 항일투쟁의 실상을 서술하였다.⁷⁹⁾

한편 일제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려 적극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⁸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鎮江에서 長沙로 이동하였다. 1938년 7월 장사에서 다시 廣東省 廣州와 廣西省 柳州를 거쳐 1939년 四川省 綦江에 안착하였다. 기강은 국민정부의 임시수도가 있는 重慶과는 지척이었다. 국무위원들이 매일 중경 국민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다음해 임시정부는 국민정부에서 마련해준 청사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고난의 이동시기에도 군대설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1940년 한국 광복군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1940년 중경에 도착한 임시정부는 내부적으로 한중 연합문제와 광복군 창설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 임정은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3개 정당을 한국독립당으로 통합하여 광복군창설에 착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창군의 주체가 한국독립당에서 임시정부로 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광복군의 성격이 黨軍에서 國軍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정부가 광복군의 창설을 서두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1938년 무한에서 성립된 조선의용대의 존재였다. 이후 김구는 중국 국민당 정부에 한국광복군 창설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⁸¹⁾ 이는 한국광복군 창설로 중국의 항일전선을 더욱 튼실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임정의 한국광복군 창설에 대한 열정은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주변 환경 속에서 김구는 한국광복군훈련대장을 마련하여 1940년 5월 1일 중국 측에 제출하였다.⁸²⁾ 이어 그해 9월 15일 한국광복군선언문⁸³⁾을 발표하였다.⁸⁴⁾

전개하였다.

7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앞의 책, 226~227쪽·238~239쪽.

80)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1989, 496쪽.

8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2006, 5~6쪽.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위원회에서는 이를 뒤인 9월 17일 마침내 한국 광복군 창설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김구는 한중 양국간 공동의 항일투쟁과 한민족 국권회복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한국광복군은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대일항전의 최정예로 탄생한 것이다. 다만 인적수급과 재정문제는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였다.⁸⁵⁾

윤대원은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에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성립과 활동을 정리하였다. 광복군의 조직과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의용대원 일부 편입과정, 중국 군사위원회의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수’의 의미 등을 서술하였다. 활동 가운데 인도, 미얀마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면공작대’의 존재도 서술하였지만 미군과의 연합작전이었던 OSS까지는 언급하지 못했다.⁸⁶⁾ 『한민족의 독립운동사』 광복군 부분도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과 대동소이하다.⁸⁷⁾ 『재발굴 한국독립운동사』 2에서는 1980년 대까지 연구를 개설서에 그대로 서술한 것 같다. 분량도 많고 광복군 성립과 조직, 활동, 인면공작대까지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OSS작전 및 국내 정진 작전까지 언급하였다.⁸⁸⁾

『강좌 한국근현대사』 임시정부 관련 서술은 아주 소략하다.⁸⁹⁾ 반 쪽 정도의 분량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27년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당시 역사 연구 현황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 같다. 한국광복군 부분도 그 탄생 배경과 조직은

82) 위의 책, 8~14쪽.

83)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수의 특별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茲에 선언한다.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과거 삼십년간 일본이 우리 조국을 병합 통치하는 동안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전을 계속하여 왔다. 영광스러운 중화민국의 항전이 사개년에 도달한 이 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에 왔다고 확신한다(하략)”(위의 책, 22~23쪽).

84)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84~94쪽.

85) 서안에 광복군총사령부가 설치된 것, 중국 국민당을 통해 자금문제를 해결한 것 등이 그것이다(한시준, 위의 책, 110~111쪽).

86) 윤대원, 앞의 책, 304~312쪽.

87) 윤병석 외, 앞의 책, 578~586쪽.

88) 한국일보사, 『재발굴 한국독립운동사』 II, 196~237쪽.

89) 역사학연구소, 앞의 책, 225쪽.

이에 언급이 없으며, 주로 선전활동에 주력했다고 묘사하였다.⁹⁰⁾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서는 한국광복군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다. 그 전신이었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활동, 광복군의 조직구성, ‘9개 준승’, 조선의용대의 한국광복군 편입, 미국 OSS와 국내 진입작전 추진 등을 정리하였다.⁹¹⁾ 2000년대까지 나온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학문적인 분단의 벽이 형해화 되면서 역사 서술도 이를 반영한 것 같다.

7. 맺음말

해방 이후 한국독립운동사 개설서 가운데 만주지역과 중국 관내지역을 중심으로 서술의 특징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 체제 하에서 독립운동사에도 이념적 잣대가 투영되었다. 예컨대 9.18(만주사변)은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지형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이는 이주한인의 삶의 터전을 이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독립운동의 인적 수급에도 또는 원활한 방략 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30년 5.30 봉기를 겪으면서 극좌흐름의 투쟁열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동북항일연군의 모태가 되는 동북인민혁명군이 조직되었다.⁹²⁾ 즉 1930년대 만주지역의 서술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1933년까지 지속되었다는 데 초점을 둔 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그 이후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민족주의 계열 가운데 조선혁명당은 1935년까지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사회주의 계열의 주요한 인재였던 독립군들 역시 1920년대 한인 교육기관을 통해 배양된 인물이 상당하다. 서로 보완적인 측면을 배제한 서술이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무장세력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 동북항일연군의 활동과 성격

90) 위의 책, 226~227쪽. OSS작전이 언급된 것은 1990년대 이후 한국광복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9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앞의 책, 228~230·250~255쪽.

92) 최강, 『조선의용군사』, 34쪽.

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 동북항일연군 비교표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	동북항일연군
자주성(독자성)	9개준승 철폐	중국군사위원회 지휘 화북지대-중국공산당지휘	만주성위 지휘(계약적)
군(대)민관계	선전활동	선전활동(활발)	긴밀함(농민 계층 대상)
전투력(조직)	간부반 운영, 정식 훈련(강도 높음), 재정지원	정치선전부대 - 전투부대 성격 담보	많은 유격전을 통해 개인적 전투 능력 제고
전략, 전술	전면전, 연합국과의 공동작전, 국내진공작전, OSS훈련 참가	전면전	유격전
역할, 임무	한국독립 우선	이중임무	이중임무
위상	임정의 군대로서 정통성 담보	중국 군사위원회의 또는 중국공산당의 지휘 하에 이중적 임무를 담당	동북지방 대표적 항일단체

둘째 독립운동의 단체의 중요도에 따라 서술의 방향과 분량이 결정되었다. 다만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다. 예컨대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상세하게 서술 하였지만 1920년대 만주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 기관은 3부 성립과 해소 과정은 소략하게 처리한 개설서들이 많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술에 대해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사실관계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결여된 개설서도 눈에 띈다. 봉오동 전투 발생 일자의 오류, 전투에서의 일본군 사망자 확대 등은 1960년대 독립운동사 편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구술자료 또는 회고록(『우등불』, 『세기와 더불어』)에 의존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넷째 만주지역 지리에 대한 정리되지 못한 서술도 있다. 오늘날에는 주로 중국 동북지방으로 불리지만 역사적인 용어인 만주(현재 내몽고 일부 포함)는 그 면적이 한반도의 5.5배 정도이다. 한국독립운동을 설명하면서 만주지역 지명을 잘못 표기하거나 한자를 잘못 사용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목룡의

한자는 정확히 穆稜인데 穆陵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독립전쟁을 선포했으며, 벌써 100년의 세월이 지났다. 한국독립운동을 한국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출간된 독립운동 개설서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분기점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방송에서 이슈로 다룬 것을 정리하여 개설서의 형식으로 출판된 것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아직도 분단체제에서 역사 서술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제는 남과 북의 분단사의 잣대로 독립운동사(항일투쟁사)를 서술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한 일이겠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진정한 한국독립운사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이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독립운동사학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2006.
- 김우중 주필, 『동북지역 조선인 항일력사자료집』 9,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2003.
- 김영범, 『조선의용대 연구』, 『한국독립운동연구』 2, 1988.
- 김창순 외, 『일제사 식민지시대의 민족운동』, 풀빛, 1981.
- 김창순, 『만주항일연군연구』, 『국사관논총』 11, 1990.
- 김태웅, 『한국 근현대 역사사진의 虛實과 정리 방향 - 국사 개설서와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 『역사교육』 119, 2011.
- 남우현, 『항일무장투쟁사』, 대동, 1988.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10, 1969.
-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 윤대원,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 한길사, 1990.
- 윤병석 외, 『한민족의 독립운동사』, 韓國民族運動史研究會, 1990.
- 이기백, 『한국사신론』, 一潮閣, 1985.
-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1989.
- 장세윤, 『조선의용대의 조직편성과 구성원』, 『한국근현대사연구』 11집, 1999.
- _____, 『남·북한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역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 _____,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2005.
-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8.
- 淺田喬二·小林英夫,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 時潮社, 1986.
- 최영희·김성식·김윤환·정효섭, 『일제하의 민족운동사』, 현음사, 1971.
- 최 강, 『조선의용군사』, 연변인민출판사, 2006.
-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한울, 1998.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독립기념관, 2013.
- 한국일보사, 『再發掘 韓國獨立運動史』 II, 한국일보사, 1988.
-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An Analysis of a history book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 Focusing on China and Manchuria –

Kim, Joo yon*

In 1987, the Independence Hall was established and Koreans began to show full interes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t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form. In addition, the opening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began to appear steadily from this time. The national interes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also reflected through the media. However,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opening letter has not been as noticeable as the interes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since the 2000s. It was the reality before the 2000s that the opening letters describ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were published on an overly ideological basis, such as when the limitations of historical narrative in the era of division were not overcome.

Since the 2000s, historical books have been published that have expanded existing history books or describe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socialist forces of socialism. In other words, the history of independence activists in Manchuria and China seems to have entered the stage of explaining the history based on objective facts. The task of explaining the reality of the division system will be to explain the opening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in the future.

* Associate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s Korean Chinese Relations Institute

Key words: Armed struggle, War of Independenc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volutionary Party of Korea, Joseon-uyongdae(Voluntary army), Korean Liberation Army

